

대학생자녀와 부모의 세대간 태도의 귀인과정

Attribution Processes of Intergenerational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박 사 안 재 회*

조 교 수 유 계 숙**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Doctor : Ahn, Jae-Hee

Assistant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well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cognize the social attitudes of one another. Mothers, fathers and youths were asked to state their own opinions on various social issues then predict their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attributed attitudes). Empirical evaluation of the possible socialization consequences of actual versus attributed attitudes leads to a series of hypothes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ingl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and their parents. Included in the seven social attitude were sexuality,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ecological, religious and family issues. Analysis of the responses 98-110 triads, each consisting a mother, a father and a young adult child showed that both mothers and fathers we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gauge the attitudes of their children.

Guided by attribution theory, this study tested several hypothesized relationships between the actual response of mother, the actual response of the father, the perceived response of the mother, the perceived response of the father and the actual response of the child. The theoretical model was tested with AMOS 5.0, utilizing path analysis, which is a for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anifest variables. Overall model fit was assessed by examining GFI, NFI, TLI, CFI and RMR.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s and fathers to be highly similar in their opinions and the actual responses of the mothers and the fathers were considerably correlated. Second, the fathers' responses whether attributed or actual were more predictive than the mothers'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opinions.

The alternative model suggests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attribution theory. Indeed, within a family, the actual opinions of parents appear to have little direct bearing on the child's orientations, except when the actual orientations are perceived and reinterpreted by the children. It is not what parents think, but what their children think they think that predicts their offsprings' attitudes.

△주요어(Key Words) : 귀인과정(attribution processes), 지각 반응(perceived response), 실제 반응(actual response), 세대간 태도 (intergenerational attitudes), 세대차(generation gaps), 사회적 쟁점(social issues), 부모-자녀관계(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 주 저 자 : 안재희 (E-mail : ahnhee@hanmail.net)

** 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yahoo.co.kr)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각계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02 월드컵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와 촛불시위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들의 직접 참여활동이 활발해 지는 등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제일기획, 2003). 동시에 대통령선거, 17대 국회의원선거,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세대균열'이 심화되었다는 상황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세대간의 기술적이며 문화적인 격차,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세대에 형성된 전선(戰線)을 가늠하게 하는 사항들이다(함인희,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문제들에 대해 중년기 부모세대와 청년기 자녀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지각변동이 심했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세대경험'을 중심으로 세대별 공통된 의식을 형성하는데, 최근 정보혁명과 세계화로 어린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세대역전'이 벌어지면서 세대격차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세대 충돌에서 세대 통합으로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2003).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발생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세대를 넘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나이로 대별되는 세대차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특정 사회 내의 연령등급 간의 차이나 사회환경의 변화가 각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이로 인해 세대차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실제적인 세대차의 규명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연령등급별 세대차를 규명할 경우, 현재 우리 사회의 만혼현상, 노령출산, 독신가구, 이혼 및 재혼 등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동일 연령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내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등급에 기초한 세대차 연구를 탈피하여 보다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진 세대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제적인 세대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을 기반으로 하면서 세대관계에서 누가 누구의 무엇을 평가하며, 평가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세대차를 규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즉 가족은 가치관 전수의 일차적 환경이며, 일반적으로 가치체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김명자, 2004에서 재인용; Marjorie & Kristen, 2000), 세대간의 가치체계 전달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김경신,

1998; Thompson et al., 1985)는 점은 세대현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코호트분석의 설명력에 대한 재고와 함께 대안적인 연구방법으로서 가족을 기반으로 한 세대연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전상진, 2004). 결국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내 세대의 가치관 및 행동의 유사성과 차이를 검토하는 일은 세대차 연구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대차를 이해하는데 가족 내 부모-자녀 간의 추론된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즉 부모-자녀 간의 태도의 귀인과정을 통해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좁혀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최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세대차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를 인식하고, 단순히 세대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나아가 세대간의 가치체계나 행동특성상의 차이를 규명한 일련의 연구들(정태연, 2001; 정태연·한광희, 2001; 정명숙·김혜리, 2005)이 수행되고 있다. 세대간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세대차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각된 세대차이며, 이는 당사자의 지각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크게 혹은 작게 지각될 수 있다. 일례로 추측에 의해서 평가한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가치관은 실제 가치관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정태연·한광희, 2001), 세대차이가 갈등의 한 요인이라고 볼 때, 이처럼 세대차에 대한 왜곡된 지각은 세대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각 세대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세대와 여타 세대를 동시에 평가해서 평가치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거나, 자신이 여타 세대를 평가하고 평가대상 세대의 실제와 비교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정태연, 2001). 타인의 가치관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및 특성을 통해 추론되기 때문에 당사자 자신의 가치관을 보고한 것과 달리 추론된 가치관은 주로 평가대상자들의 특성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본인의 행동 및 그 특성에 관한 내용은 귀인과정으로 설명되어 진다.

에이콕과 벵슨(Acock & Bengtson, 1980)은 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며 혹은 그 부모의 청년 자녀가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의 세대차는 부모와 자녀의 실제 태도에서보다 그들의 가족 내 귀인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각된 세대차는 그들의 실제 태도에서보다 두

집단의 인식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태도는 부모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보다 부모의 입장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과정간의 차이는 가족 내 부모-자녀의 두 세대간 태도에 관한 연구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부모의 실제 태도 혹은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둘 중 하나만을 측정하였고, 그 둘 모두가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부모-자녀 간 세대 연구는 대개 부-자, 모-자의 2자 관계(dyad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모-자녀의 3인군(triads)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부모-자녀 세대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부모-자녀 간 세대차를 다룬 연구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세대간의 가치관 및 태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단일문항만을 사용했거나 하위차원들 간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제한점들이 지적되어왔다(정태연, 2001; Acocck & Bengtson, 1980).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을 구성하는 부모-대학생 자녀의 3인군을 대상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의 실제 태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회적 쟁점과 세대차

1) 사회적 쟁점의 개념

사회적 쟁점이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사안으로 현재 대학생자녀와 그들 부모간의 태도차를 보이는 주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쟁점으로 이라크 파병이나 대미관계 문제가, 경제적 쟁점으로 카드 빚 탕감, 노조파업, 빈부격차 문제가, 교육적 쟁점으로 학벌의 폐해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환경생태 쟁점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생명복제 등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사회의 성원들마

다 자신이 처한 입장과 경험에 비추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사회 성원들 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자녀를 통해 입수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나 혹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경향성에 치우친 주제는 사전에 일차적으로 걸러졌다.

2) 진보와 보수의 개념

현 시점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수라고 정의하며, 진보는 보수와 반대로 기존의 질서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유동적 성격으로 정체적이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에 열려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부모세대라고 하여 꼭 보수를 고집한다거나 대학생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3) 세대차의 개념

같은 세대는 동일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간에는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해 상이한 사회적 표상을 갖는 것을 세대차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일 연령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내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등급에 기초한 세대차 연구를 탈피하여 가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진 세대연구를 시도하였다.

4) 사회적 쟁점에 따른 세대차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세대차는 곧 가족 내 세대차를 포괄하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세대차는 작게는 가족 내 세대간의 불신이나 대화의 단절과 같은 갈등을 야기하지만, 급격한 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이 매우 커서 이것이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성남, 1991; 정태연,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잉글하트(Inglehart, 1997)는 한국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로서,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그만큼 크게 벌어져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나라라고 지적하였다. 세대차이가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 안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배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추론되며, 이 경우, 내집단은 “끼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자기들과 달라 보이는 외집단은 처음부터 불신하고 배척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나은영·민경환, 1998).

황상민과 김현정(1996)은 세대차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세대간 사회적 표상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사회적 표상은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즉, 외부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세대는 동일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간에는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해 상이한 사회적 표상을 갖기 쉽다. 황상민과 김도환(2004)은 심리적 세대 모형을 제시하여 특정 출생동시집단의 심리적 속성을 규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심리적 속성은 해당 출생동시집단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생활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정 출생동시집단의 세대적 특성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슈만과 스콧(Schuman & Scott, 1989)은 미국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사건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이 10대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경험한 사건들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바로 그 시기에 개인의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문용린과 그의 동료들(1996)이 연구 보고한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에 따르면, 신세대들이 가지는 사회적 의식성향은 이중적이다. 즉, 비판적 사회의식을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수적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한 경제구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 기회가 불평등한 현실, 능력보다 연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개인주의적 소비의식을 가지는가 하면 멋과 모양을 중시하는 감각주의적 소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인 소비의식은 도시지역, 상층, 부유층 청소년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특히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이중성과 세대간의 차이에 관한 나은영과 민경환(1998)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 문화의 이중성, 즉 명시적/공식적 규범과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 간 불일치의 저변에는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간의 불일치,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즉,

연고주의와 연줄)의 발달,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및 가족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집단 신뢰는 높지만 사회 전체의 신뢰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경우는 근대적 생각과 규범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관행과 행동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신세대의 경우는 탈 근대적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중성이 약하나, 이들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 규범을 만들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과 행동 간의 괴리는 여전히 클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규범의 차이보다 관행의 차이가 더욱 현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관행의 차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이중성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인 권력이 없는 신세대보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공식적 규범과 비공식적 행동원리 간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우리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기성세대와 진보적인 젊은 세대 간의 세대차가 어느 사회보다도 크게 나타나며, 양 세대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현재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세대차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 전반의 이중성을 지배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공식적 규범과 비공식적 행동원리 간의 불일치를 고려할 때, 사회적 쟁점에 대한 세대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출발점인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간 세대차와 함께 기성세대인 부모들의 관점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세대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연구를 통해 세대간의 지각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들에 대한 태도를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이나 요인이 세대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2. 태도의 귀인과정

1) 귀인의 개념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에 있어서 내면적인 기질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인과(因果)를 추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추리는 관찰자의 지각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와 같이 타인행동 나아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추리하거나 환경 내에 있는 실체의 기질적인 속성을 지각하여 추리하는 과정을 귀인이라 한다(이경희·정창주, 2000; Kelley,

1967).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의 원인에 대한 지각이나 내적, 외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 변화해 가기도 한다(박영신·김의철, 1997). 또한 인간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리하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자신이 수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항상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다. 이 연구는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의 대인관계심리학(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에서 출발하였는데 하이더(Heider)에 의하면 귀인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지부분이며, 환경을 인지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인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즉, 귀인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그의 내적 요소(능력, 노력 등)와 외적 요소(과업 난이도, 운 등)의 결합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개인이 지각한 상황을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어느 것에 귀인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한다(이경희·정창주,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자녀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주된 과제이므로 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성격, 신념, 가치를 획득하는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인지적 결합작용을 귀인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태도의 귀인작용

개인의 태도는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설명가능한데, 즉 학습이론은 경험이나 연습에 의해서 유기체가 새로운 행동특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적응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습이론은 크게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인지주의 학습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태련 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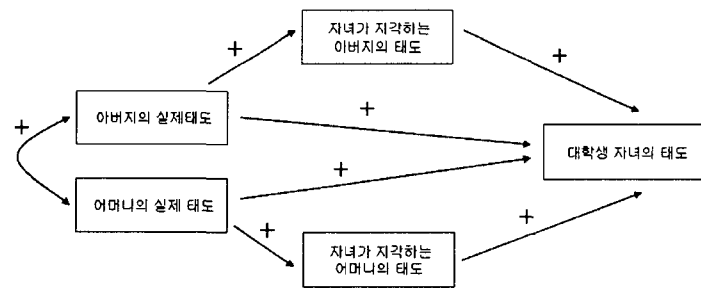
행동주의 학습이론가들은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행동의 변화로 정의한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삶의 과정은 환경자극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경우 인간의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행동에 대해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학습이란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내적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내적관계란 문제 속에 내포된 요소들끼리 상호 관련되어 있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환경과 행동 간의 중간과정인 인간의 내적과정(인지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김태련 등, 2004).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반두라(Bandura)는 인간행동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인지적 학습이론은 관

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을 모방(imitation) 또는 모델링(modeling)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관찰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적으로 재현하고, 우리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정옥분, 2004). 즉, 인간은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혼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가 보상을 받는지, 무시되는지, 처벌받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직접경험은 물론 타인의 관찰을 통해 학습한다.

가령 앤드슨(Anderson)은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각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태도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으나, 상대 집단은 자신의 집단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앤드슨(Anderson)은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실제적인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그릇된 지각이나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창호,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켈리(Kelly, 1967)는 지각자가 단순한 관찰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복합적 관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이경희·정창주, 2000).

한편 에이콕과 벵슨(Acock & Bengtson, 1978)은 부모-자녀 3인군(triads)을 통해 정치적, 종교적 세대간 전수에 있어서 세대간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사회화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와 아울러 이성보다 동성간의 세대간 전수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측정 은 자녀의 태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 졌는데, 연구결과 어머니의 태도가 아버지에 비하여 대부분의 변인에서 자녀의 태도와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아들과 딸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실제 태도 및 지각된 태도 간의 일치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었다(Acock & Bengtson, 1980; Chilman, 1980; Hoge et al., 1982; Thompson et al., 1985; Whitbeck & Gecas, 1988). 즉, 부모-자녀의 세대간 가치 전수에 있어서 세대간 실제 태도를 측정된 값의 상관보다 세대간 지각을 측정된 값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툰슨, 에이콕과 클라크(Thompson et al., 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 즉, 가족주의, 종교, 외국문제 개입, 마약, 평등한 부부, 모의 취업, 성적 허용, 직업윤리 이상 8개 항목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부모들로 하여금 추측하도록 한 결과, 종교와 성적 허용에서만 부모의 지각과 실제 자녀의



<그림 1> 연구모형

태도 간에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태도를 더 정확하게 지각하였다.

국내에서는 정태연(2001)이 수행한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2인 간의 지각 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기성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 간에는 모든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처럼 기성세대에 비하여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평가가 보다 일치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거나 부모가 사회적 상황은 다르지만 발달적으로 젊은 시기를 거치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쏟음으로써 젊은 세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보다는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보편화되면서 부모들이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의 평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반화되어있을 경우, 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세대 특수적이기 보다는 세대 보편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특정 세대의 특성에 근거한 평가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 세대를 초월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에이콕과 벵슨(Acock & Bengtson, 1980)은 자녀가 그들 부모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지각은 자녀가 자신의 세대와 관련하여 얼마나 자유적인지 혹은 보수적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부모의 실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의 실제 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실제 태도 및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가?

또한 본 연구는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사회적 쟁점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의 태도 간에는 정적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3-2>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귀인 과정을 통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태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미혼 대학생과 그 부모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개인적인 욕구상승과 더불어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대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자녀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2. 자료수집 절차

1) 자료조사

기성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학생 자녀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는 사회적 쟁점에 세대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사회

적 쟁점에 대한 자녀 및 부모의 태도를 묻는 질문과 함께 자녀 및 부모 양측에게 상대의 태도를 추측하여 답하도록 요구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서울시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795명의 남녀 미혼 대학생에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고, 부모용 질문지는 대학생 자녀를 통하여 배부한 뒤 각 가정에서 기입한 후 밀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이

<표 1> 연구대상 대학생과 그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438)

인구사회학적 특징	측정 값	
	빈도(%), 평균(표준편차)	
대학생 자녀의 성별	남	162(37.0)
	여	276(63.0)
만 연령(세)	대학생 자녀의 연령	21.40(2.27)
	아버지의 연령	51.71(4.16)
	어머니의 연령	48.31(3.72)
	부자 연령차	30.32(3.53)
	모자 연령차	26.92(3.10)
대학생 자녀의 학년	1학년	126(29.0)
	2학년	106(24.4)
	3학년	134(30.9)
	4학년	68(15.7)
대학생 자녀의 전공	인문학	39(9)
	자연과학	255(59)
	사회과학	89(21)
	생활과학	18(4)
	예술 및 체육학	32(7)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5(10.3)
	고재학·고졸	171(39.1)
	대재학·대졸 이상	221(50.6)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행정관리직	143(32.8)
	사무직	89(20.4)
	판매직·서비스직	123(28.2)
	농림어업·생산직·운수직·단순노무직	74(16.9)
	학생	1(.2)
	무직·실직	6(1.4)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7(15.3)
	고재학·고졸	257(58.7)
	대재학·대졸 이상	114(26.0)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행정관리직	30(6.9)
	사무직	23(5.3)
	판매직·서비스직	99(22.7)
	농림어업·생산직·운수직·단순노무직	24(5.5)
	전업주부	255(58.4)
	학생	1(.2)
대학생 자녀의 종교	무직·실직	5(1.1)
	기독교	138(31.6)
	천주교	57(13.0)
	불교	63(14.4)
	무교	179(41.0)
가정의 월평균 소득(만원)	418.07(220.12)	
가족의 자녀수(명)	2.21(.83)	

주: 각 변인에 대한 사례 수는 무응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중 누락 및 부실 기재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질문조사 실시 현재 부모 양측이 생존해 있으면서 초혼을 유지(이혼, 재혼, 사별, 별거의 경우는 제외함)하고 있는 총 438명의 대학생과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인 모두가 부실기재 없이 응답한 가족 총 98-110쌍(연구문제의 분석 변인에 따라서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상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이들 3인군에 속한 대학생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21.40세(범위 18~29세)였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51.71세(범위 44~69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8.31세(범위 41~60세)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전체의 50.6%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5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각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418.07만원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전체의 53.2%가 전문직이나 행정관리 및 사무직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의 대립을 야기하는 최근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영역구분 없이 개방 질문한 결과, 사회적 쟁점 40개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본 조사에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쟁점들에 대하여 '전적 반대(1점)'-'전적 찬성(5점)'의 5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이를 주성분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0.3보다 작은 쟁점이나 안면타당도를 거쳐 진보-보수의 성향을 결정하기 모호한 쟁점 9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성(性)문제(6문항), 교육문제(3문항), 경제문제(4문항), 정치사회문제(5문항), 환경생태문제(4문항), 종교문제(3문항), 가족문제(6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찬(보수), 반(진보)을 측정하는 31개의 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문제영역에 대하여 응답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점수가 낮을

<표 2> 문제영역별 사회적 쟁점의 주성분분석 결과

(N=100)

문제영역별 사회적 쟁점		요인 부하 값
성(性)문제 (6)	결혼 전 동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64
	결혼 전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82
	혼외관계(외도)는 없어야 한다.	.63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53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57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	.49
교육문제 (3)	출세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1
	적성에 대한 고려보다 성적이 우선이다.	.76
	가족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해외유학은 가야 한다.	.59
경제문제 (4)	카드 빚 문제는 전적으로 카드사용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57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50
	자신의 계층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73
	노조의 파업은 없어져야 한다.	.53
정치사회문제 (5)	이라크 파병은 잘한 결정이다.	.63
	주한미군은 존속되어야 한다.	.59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받아들여야 한다.*	-.33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6
환경생태문제 (4)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49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77
	후대를 위해서 환경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77
	기업은 환경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추구가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71
종교문제 (3)	인간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	.46
	종교계 학교라 하더라도 학칙보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53
	우리 사회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한다.*	-.79
가족문제 (6)	부부나 부모자녀 등 가족원들의 종교는 일치해야 한다.	.70
	결혼이 독신보다 낫다.	.62
	무자녀보다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	.71
	노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다.	.50
	동성동본 결혼은 삼가야 한다.	.43
	국제결혼은 안하는 것이 좋다.	.55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39	

* 역산문항임.

수록 진보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문제영역별로 주성
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 자료 분석 방법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고찰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녀의 지각과 실제 부모의 태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지각한 점수와 실제 부모가 응답한 태도점수 간의 차이를 각각 쌍체 t-검증하였으며, 그리고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실제 태도와 대학생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만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한 결측치의 처리는 EM(expectation-maximization)에 의한 최대우도추정법(maxi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대체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실제 태도의 전반적 경향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실제 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모두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버지의 경우 성(性)문제와 가족문제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경우 성(性)문제와 환경생태문제에 보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는 부모 모두 교육문제의 경우 거의 유사하게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현 교육현실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性)문제나 가족문제의 경우 부모 모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지만 가족주의적 관점에서는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실제 부모의 태도 간 차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대학생 자녀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쟁점 각 영역별로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를 지각한 점수와 실제 부모가 응답한 태도점수 간의 차이를 각각 쌍체 t-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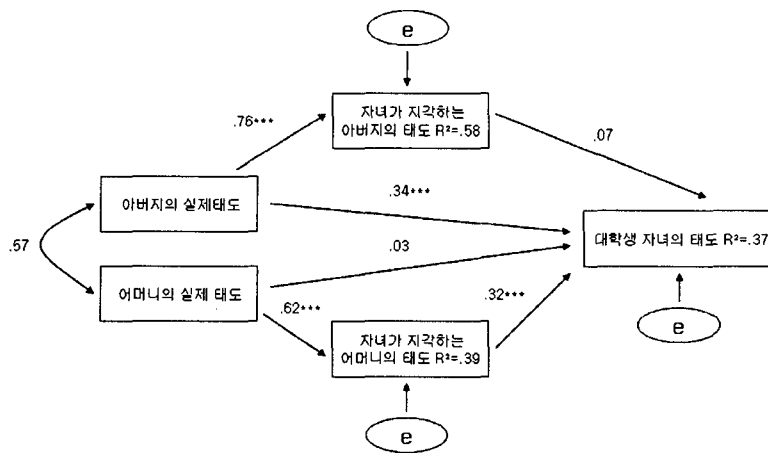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태도를 실제보다 진보적으로 추측하였으나, 사회적 쟁점의 영역에 따라 지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문제와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실제보다 진보적으로 지각한 반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태도를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종교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실제 부모의

<표 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실제 부모의 태도 간 차이

문제영역별 사회적 쟁점	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n=부자 103~104쌍)			어머니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n=모자 110~111쌍)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점수 (표준편차)	실제 아버지의 응답점수 (표준편차)	t 값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점수 (표준편차)	실제 어머니의 응답점수 (표준편차)	t 값
성(性)문제	4.34(.62)	4.46(.67)	-1.462	4.35(.60)	4.34(.93)	.090
교육문제	3.24(.78)	2.75(.89)	4.739***	3.30(.76)	2.87(.84)	4.160***
경제문제	3.31(.66)	3.66(.66)	-4.298***	3.29(.62)	3.59(.56)	-4.378***
정치사회문제	2.78(.61)	2.95(.66)	-2.280*	2.70(.57)	2.69(.59)	.105
환경생태문제	3.64(.74)	3.86(.76)	-2.447*	3.70(.70)	4.05(.67)	-3.909***
종교문제	2.61(.84)	2.79(.93)	-1.772	2.61(.88)	3.04(.86)	-4.926***
가족문제	4.10(.52)	4.08(.65)	.302	4.02(.51)	3.87(.53)	2.478*
전체 평균	3.43(.29)	3.51(.37)	-2.176*	3.42(.31)	3.50(.33)	-1.996*

*p<.05, ***p<.001

주 : 각 쌍체 t-검증에서 분석된 쌍의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무응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태도보다 진보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가족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실제 태도보다 보수적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사회적 쟁점의 여러 영역 중 예외적으로 성(性)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부모의 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性)문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들에 대하여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부모의 태도를 보수적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와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아버지의 실제 태도와 어머니의 실제 태도 간에는 정적 상관($r=.39, p<.001$)이 존재함으로써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 간에 유사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3-2와 3-3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실제 태도와 대학생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인정(model identification)을 평가한 결과를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결측치의 처리는 EM(expectation-maximization)에 의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표 4> 인과모형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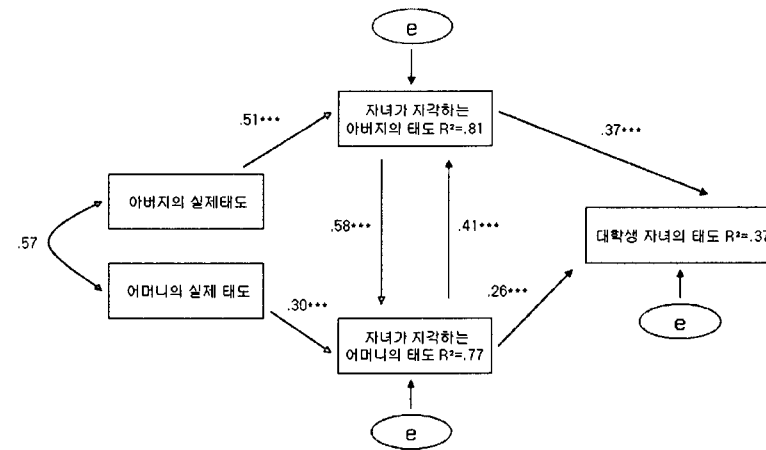
	1	2	3	4	5
1. 대학생 자녀의 태도	1.00				
2.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태도	.59	1.00			
3.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태도	.57	.87	1.00		
4. 아버지의 실제 태도	.34	.44	.37	1.00	
5. 어머니의 실제 태도	.25	.28	.32	.39	1.00

<표 5> 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

모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값	표준화계수
아버지의 실제 태도 →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1.05	.03	33.39***	.76
어머니의 실제 태도 →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1.17	.05	22.34***	.62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08	.08	.93	.07
어머니의 실제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06	.08	.74	.03
아버지의 실제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51	.07	7.05***	.34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33	.07	4.97***	.32
아버지의 실제 태도 ↔ 어머니의 실제 태도	.02	.00	13.94***	.57

*** p<.001.

$\chi^2(3)=949.94, p<.001; GFI=.80; NFI=.66; TLI=.14; CFI=.66; RMR=.01$



*** $p < .001$

<그림 3> 수정된 인과 모형

estimation)을 적용하여 대체하였다. 이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대우도추정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D(listwise deletion)나 PD(pairwise deletion)와 같은 결측치 삭제방법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김계수, 2001; 허준·최인규, 2000).

<그림 2>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의하여 재현된 부모의 실제 태도 간에도 표본 상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beta = .57, p < .001$). 그리고 아버지의 실제 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 = .34, p < .001$), 어머니의 실제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써 가설 3-2는 아버지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한편 귀인 과정에 근거한 경로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실제 태도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 = .76, p < .001$), 이를 매개로 자녀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실제 태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 = .62, p < .001$),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beta = .32, p < .001$)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가 어머니의 실제 태도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귀인 과정에 근거한 가설 3-3이 채택된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지되었다.

한편 이러한 연구모형이 표본 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 주요 적합도지수를 살펴본 결과, 가설 3-2와 3-3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모형은 수용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chi^2 = 949.94, df = 3, GFI = .80, NFI = .66, TLI = .14, CFI = .66, RMR = .01$) 모델의 수정을 검토하였다. 모델을 수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론과 지식에 입각한 근거이다. 수정지수가 큰 값일지라도

개방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모수는 개방하지 않아야 하며, 각 모수에 대한 t-검증 결과 그 값이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이론과 지식의 관점에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모수는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조현철, 1999).

따라서 수정모형에서는 귀인이론(Acock & Bengtson, 1980; Thomas, 1972)에 입각하여 부모의 실제 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귀인 과정 경로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제 태도 간에 유사성(정적 상관)이 존재하므로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태도를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면 어머니의 태도도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고, 역으로 어머니의 태도를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면 아버지의 태도도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부모의 태도 간에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정된 수정모형을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한편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적합도지수를 살펴본 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매우 향상됨으로써 세대간 태도의 전수에서 귀인 과정과 부모의 태도 간 유사성에 근거한 수정 모형은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9.97, df = 3, GFI = .97, NFI = .98, TLI = .93, CFI = .98, RMR = .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수정모형을 통하여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실제 태도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51, p<.001$),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beta=.37, p<.001$)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가 아버지의 실제 태도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실제 태도 역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30, p<.001$),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beta=.26, p<.001$)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가 어머니의 실제 태도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에서 귀인 과정에 근거한 가설 3-3이 채택되었다.

결국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를 통하여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볼 때, 세대간 태도의 귀인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제 태도나 대학생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모두가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자녀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수정모형에서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유사하다는 근거 하에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 간의 쌍방향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아버지의 태도를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는 자녀는 어머니의 태도도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beta=.58, p<.001$), 역으로 어머니의 태도를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태도도 보수적(진보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eta=.41, p<.001$). 또한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볼 때,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가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그 역방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유사하게 지각하는 경향

<표 6> 수정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값	표준화계수
아버지의 실제 태도 →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70	.03	21.84***	.51
어머니의 실제 태도 →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58	.04	13.25***	.30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28	.06	4.48***	.26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 대학생 자녀의 태도	.42	.07	6.44***	.37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61	.03	20.64***	.58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39	.03	14.41***	.41
아버지의 실제 태도 ↔ 어머니의 실제 태도	.02	.00	13.94***	.57

*** $p<.001$
 $\chi^2(3)=59.97, p<.001; GFI=.97; NFI=.98; TLI=.93; CFI=.98; RMR=.00$

<표 7>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	Q	GFI	CFI	RMR	NFI	TLI
연구모형	949.94	3	.000	316.65	.80	.66	.01	.66	-.14
수정모형	59.97	3	.000	19.99	.97	.98	.00	.98	.9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889.97	0							

<표 8>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 종속변인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태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태도			대학생 자녀의 태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의 실제 태도	.51	.16	.67	-	.39	.39	-	.35	.35
어머니의 실제 태도	-	.16	.16	.31	.10	.40	-	.16	.16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	.31	.31	.58	.18	.76	.37	.31	.68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41	.13	.54	-	.31	.31	.26	.28	.54
R^2	.81			.77			.37		

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 역시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대한 지각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37%이며($R^2=.37$, $p<.001$),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의 총효과의 크기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태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 아버지의 실제 태도, 어머니의 실제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는 쌍방향 인과관계와 부모의 실제 태도 간 상관관계에 의하여 인과경로 상 자체 변인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부모의 실제 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지각을 통하여 자녀의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버지의 실제 태도는 어머니의 실제 태도에 비하여 자녀의 지각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어머니의 실제 태도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는 동일 쟁점에 대하여 평소 자녀가 생각해온 아버지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있으며, 어머니의 태도도 자녀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유사하게 인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 3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묻는 질문과 함께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태도를 추측하여 답하도록 요구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그들의 대학생 자녀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인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버지보다 크게 나타났다(Acock & Bengtson, 1980; Chilman, 1980; Hoge et al., 1982; Thompson et al., 1985; Whitbeck & Cecas, 198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가장 중심적인 우리 문화의 특징과 함께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상대나 세대간 태도를 전수하는 주체가 어머니보다 아

버지라고 인식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자녀들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가족 내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이 어머니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미국의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지각하고, 종교문제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부모의 태도에 대한 지각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다(Thompson et al., 1985). 반면 본 연구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실제보다 진보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학 입학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미국의 자녀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부모와 의사소통하거나 부모의 태도를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의 연구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서구문화권이기는 하나, 당시의 부모들이 현재의 한국 부모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가 대체로 '475세대'(50년대 출생자로 70년대 대학을 다닌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세대)로서, 이들의 진보적 특징이 자녀의 지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현재 대학생들의 부모세대는 70년대 후반 유신말기와 80년대 벽두의 혹독한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정치적으로 억압받은 세대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는 넥타이부대의 주력으로 거리에 나선 게 바로 이들이었다. '386세대'가 집단적인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학생운동 세대라면 '475세대'는 그런 '386세대'에 거꾸로 영향을 받아 정신적으로 '386세대'와 친화성이 강한 세대이다. 그러나 '475세대'는 경제적으로 '386세대'보다 행복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80년대 고도성장기 취업난이 극심하지 않을 때 취업한 세대이고, 사회의 틀이 완전히 짜이지 않을 시기에 성장의 과실을 수혜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경제적 기반으로 따지면 안정지형 연령층임에 틀림없는데, 정치적으로 개혁성을 띠는 까닭도 '475세대'의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한겨레21, 2002).

셋째, 미국의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 간 유사성을 실제보다 매우 높게 지각하였으며(Acock & Bengtson, 1980),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간의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생 자녀들은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고, 어머니의 태도를 추측할 때에는 평소 자녀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유사하게 인식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언급하자면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를 통하여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볼 때, 세대간 태도의 귀인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제 태도나 대학생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아버지의 태도 모두가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의 미혼 남녀 대학생들과 초혼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로 한정되었고, 대학생 자녀의 남녀 비율, 학년 분포 및 설문주제를 고려한 전공별 대상자 분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척도에 포함된 쟁점들 외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타 쟁점들을 망라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단일문항에 의하여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 3인군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세대간 태도를 다룬 기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들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대간 태도의 전수에 있어 귀인 과정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기존의 이론모형을 개선하여 귀인 과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 간 유사성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생활프로그램, 특히 아버지교육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대간 태도의 전수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문화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생 자녀가 단순히 부모의 생각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혹은 부모-자녀 간 대화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형은 사회적 쟁점에 관한 전반적 태도만을 포함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별로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혼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리는 매우 전형적인 가족 형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 형태 이외에 보다 다양한 가족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거나 혹은 이들 간의 비교연구로 양적 및 질적 접근과 아울러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세대간 태도의 전수와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쟁점은 시간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이외에 보다 시의 적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가족성원들 간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3일

【참 고 문 헌】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계수(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명자(2004).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 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55-80.
- 김태련 외(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박영신·김의철(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중·고·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삼성복지재단(1996).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
- 이경희·정창주(2000). 귀인이론에 관한 일고찰. **산업경제연구**, 13(1), 1-17.
- 이창호(2002).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2002년 한국 청소년학회, 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133-140.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파악, 세대연구의 빈곤-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 정명숙·김혜리(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_____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봄), 61-83.
- 정태연(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 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정태연·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회*, 21(1), 1-14.
- 제일기획(2003). 대한민국 변화의 태풍-‘젊은 그들’을 말한다. 마케팅해부학보고서.
- 조성남(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요약집*, 66-73.
- 조현철(1999). LISREL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
- 함인희(2002).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사상*, 2000년(봄), 188-209.
- 허준·최인규(2000).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황상민(1999). 세대의 계열과 인생주기를 통한 미래사회 성격의 예측. *현상과 인식*, 1999년(겨울), 100-118.
- 황상민·김도환(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상민·김현정(1996).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229-250.
- 동아일보(2003). 세대차, 생각차, 우리도 할 말 있다. 2003. 2. 26.
- 한겨레21(2002). 40대에게 물어봐. 2002. 5. 29. <http://search.hani.co.kr>.
- Acock, A. C. & Bengtson, V. L.(1978). On the Relativ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A Covariance Analysis of Political and Religious Social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3), 519-530.
- Acock, A. C. & Bengtson, V. L.(1980).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Actual versu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 and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01-515.
- Chilman, C. S.(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29(3), 339-345.
- Hoge, D. R., Petrillo, G. H. & Smith, E. I.(1982). Transmission of Religious and Social Values from Parents to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569-580.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Marjorie, E. S. & Kristen, E. H.(2000). Adolescents' Plans for Family Formation: Is Parental socialization Importa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2), 416-429.
- Schuman, H. & Scott, J.(1989).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59-381.
- Thomas, W. I.(1972). The Definition of the Situation. In J. G. Marris & B. M. Meltzer(eds.), *Symbolic interaction*(331-336). Boston: Allyn and Bacon.
- Thompson, L., Acock, A. C. & Clark, K.(1985). Do Parents Know Their Children? The Ability of Mothers and Fathers to Gauge the Attitud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34(3), 315-320.
- Whitbeck, L. B. & Gecas, V.(1988). Value Attributions and Value Transmiss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829-840.